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Korea Traditional Archery Culture Society

소식지

일시천금

一矢千金

2026년 9월 제3권 제3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

KTACS News Letter

인사말 나영일 / [03](#)

2026 세계유목민대회(World Nomad Game) 키르키즈스탄 / [07](#)

충장공 양헌수 장군 기념 활쏘기 대회 및 연관 기념사업 추진 현황

양희선 / [08](#)

활터에서 생긴 일 박평선 / [12](#)

활쏘기와 새로운 세상 한진만 / [15](#)

화살의 소리 데이비드 라바이씨 / [19](#)

한산정 활쏘기 체험 변정용 / [27](#)

원고모집 / [32](#)

* 쪽번호를 짚각하면 곧 바로 연결됩니다.

펴 낸 이 나영일

엮 은 이 변정용

펴냄날짜 2026 년 9월 25일

펴냄방식 분기마다

펴냄범위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인사말



나영일 (회장)

존경하는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여러분!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늘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5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제6회 세계노마드대회'에 우리 보존회 식구 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한궁도협회 역시 지난해 울산세계궁도대회 개최를 계기로 궁도세계연맹을 창설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자 이번 대회에 국가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특히, 대한궁도협회가 40~70m 근사

(近射) 경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흰 운동복이 아닌 전통 한복 경기복을 마련하여 참가한 점은 매우 뜻깊은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에서는 최근 새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소식지 또한 올해부터 연 4회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애써주신 David Lavaysse 교수님과 소식지를 멋지게 편찬해 주신 출판이사 변정용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토) 대구 용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 활문화와 대구의 활터"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나영일 회장)는 '우리나라 활 문화의 역사'를 통해 활쏘기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고, 최석규 이사(국궁문화연구회 회장)는 '우리 활터 100년 사정(射亭)'을 주제로 근현대 활터의 형성 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주동진 감사(세계민족궁대축전 상임이사)가 '대구 활 문화의 역사와 사-사정(四-射亭)'을 주제로 지역 중심의 활 문화 자산을 조명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김상진 대구일보 편집국

장, 엄진성 공주대 외래교수, 김병연 달구벌죽궁 공장, 김이수 부회장(국궁 교수회 회장), 지동철 사무처장, 변정용 편집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민족 고유 자산인 활 문화의 현대적 활용과 지역 활 문화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활발한 종합토론을 펼쳤습니다. 오는 11월에도 용학도서관에서 "마음챙김, 마음수양"을 주제로 세미나가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주동진 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구·경북 지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2026 하반기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신청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교사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이승환 이사, 김은영 회원, 김귀혁 대광고 교사, 지동철 사무처장, 남현경 사무국장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난 7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 한복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모에 신청했던 '한복 활쏘기 경기복과 연습복' 사업은 아쉽게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9일에는 국가유산청과

궁능유적본부에 창덕궁 「영화당친림사선도(映花堂親臨賜膳圖)」 재현(궁중 활쏘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조실록』(인조 17년, 1639) 기록에 따르면 인조는 춘당대에 거동하여 "이곳은 무예 시험에 편한 장소이니, 앞으로 봄(음력 2·3월)과 가을(음력 8·9월)에 활쏘기와 포 쏘기 시험을 정례화하라(上曰: 此處試藝便好, 春則二三月, 秋則八九月定爲恒規, 試射試砲可也)"고 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춘당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공간적 기능과 모습이 크게 훼손되어, 작은 마당과 담장만이 남아 창덕궁과 창경궁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왕실의 장엄한 행사가 펼쳐졌던 역사적 공간이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것은 우리 전통 활문화의 관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춘당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공간적 기능과 모습이 크게 훼손되어, 작은 마당과 담장만이 남아 창덕궁과 창경궁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해 있습니다. 왕실의 장엄한 행사가 펼쳐졌던 역사적 공간이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것은 우리

전통 활문화의 관점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제안이 춘당대의 역사적 가치와 공간적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향후 고증에 바탕을 둔 역사 재현과 공간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 춘당대에서 조선시대 왕실의 활쏘기 문화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과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33회 장안편사놀이대중회: 10월 3일(토) 09:00~15:00, 서울 영학정에서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행사 참여: 10월 15일(목) 08:30부터 서울시 마포구 유니세프 광장에서 프랑스대사관 주최의 <프랑스-한국 수교 140주년 기념 달리기 대회>의 특별 문화체험행사로 보존회가 한국 활쏘기 소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회 충장공 양헌수 장군 기념 활쏘기 대회 개최: 인천 강화정에서 11월 7일(토) 09:00(개사, 개회식은 11:00)부터 실시합니다. 활쏘기문화보존회는 제1회 때부터, 충장공 양헌수 장군에 관한 학술대회와 충장공 양헌수장군배대회개최 기원 편사대회를 여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인천은 물론, 서울의 황학정, 석호정, 화랑정 그리고 멀리 제주도공도협회를 특별초청하여 전국적인 활쏘기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9월호 소식지에 귀한 글을 기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소식지에 원고를 발표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 제 든 지 사 무 국(ktacs1004@naver.com)이나 집행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비 중복 납부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회비 납부 현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과 문화를 더욱 굳건히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옛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加也勿減夜勿 但願長似嘉俳日 - 『열양세시기』)" 하고 노래했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곳은 무예 시험에 편한 장소이니, 앞으로 봄(음력 2·3월)과 가을(음력 8·9월)에 활쏘기와 포 쏘기 시험을 정례화하라(上曰：此處試藝便好，春則二三月，秋則八九月定爲恒規，試射試砲可也)"고 명한 바 있습니다.

2026 세계유목민대회(World Nomad Game) 키르키즈스탄

수도 비쉬케크에서 버스로 8시간 거리에 있는 아름답고 바다와 같이 큰 이시쿨 호 동쪽에 있는 키르친골에서 8.31부터 9월 6일까지 개최되었다. 지난 7월에 대한궁도협회에서 선발한 남녀 각 3명 총 6명이 참가한 전통활 경기에서 김광염(동호정) 접장은 70미터에서 20위를 하여 32강에 들었고, 황현희(고헌정) 명궁은 40미터 경기에서 32강에서 16강까지 진출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아직도 단거리에서 실력은 국제수준과 차이가 많이 남은 인정해야 한다.

145미터만을 고수해 온 대한궁도협회가 울산 세계궁도대회를 주관하면서 단거리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10월말에 울산에서 개최되는 세계궁도대회는 지난 해에 드러났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궁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 수 있도록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8 World Nomad Game은 러시아 연방인 타타르스탄 카잔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8년에는 우승에 이를 수 있도록 협회와 대한체육회가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충장공 양헌수 장군 기념 활 쏘기 대회 및 연관 기념사업 추진 현황



양희선(화랑정)

양헌수 장군은 조선 말기 대표적 무인으로, 1866년(고종3) 병인년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친 호국인물이다. 화서 이항로 문하에서 학문을 익힌 유장(儒將)이다.

[양헌수 연보 (1816~1888)]

◇ 본관 : 남원, 호 : 하거(荷居)

◇ 시호 : 충장공(忠莊公)

* 1816년 (순조 16)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광탄리 출생

* 1848년 (헌종 14) 무과 급제, 1864년 (고종 1) 제주목사

* 1866년 (고종 3) 어영청 순무천총 (병인양요 현장 지휘관)

* 1875년 (고종 12) 형조판서 겸 금위대장, 1884년 (고종 21) 공조판서

1. 주요 기념사업

양헌수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학생 활쏘기 대회, 전쟁기념관의 양헌수 장군 현양 행사 및 유물 전시, 강화도 전 등사의 영산대재, 양평군 송구대 성역화 사업, 제주 지역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 등이다. 하나씩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 본다.

가. 양헌수 장군 기념 활쏘기 대회

대학생 중심의 활쏘기 대회는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양헌수 장군의 주요 유적지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특징이 있으며, 장군의 고향인 경기도 양평, 병인양요 승전지인 강화도, 제주목사 재임 당시 선정을 기리는 제주 지역 등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1회 양헌수 장군 기념대회는 2022년 12월 27일 활쏘기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양평정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회 대회는 2023년 11월 4일 양평정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제3회 대회는 2025년 11월 15일 서울 난지 국궁장에서 개최하였다. 제4회 대회는 금년 11월 7일 강화군 강화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개최 예정이다.

나. 전쟁기념관 양헌수 장군 현양 행사 및 유물 전시

금년은 병인양요 160주년이 되는 해로, 전쟁기념관은 양헌수 장군을 2026년 10월 호국인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 8일 양헌수 장군 현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은 2008년에도 양헌수 장군의 유품을 후손들로부터 기증받아 특별 전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병인양요 당시 정족산성 전투를 기록한 「병인일기」를 비롯한 서책과 교지, 군복 등 장군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다. 강화 전등사 영산대재

강화 전등사에서는 매년 인천·강화 지역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영산대재를 개최하고 있다. 이 영산대재는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헌수 장군의 병인양요 접전과 전등사와의 관계는 깊다. 당시 조선군 본진이 진을 쳤고, 스님들의 프랑스 군 정보 제공이 작전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대웅전 기둥과 벽면에는 당시 참전한 포수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정족산 사고를 지킴으로 「조선왕조실록」등을 보존하였고, 병인양요 승전 비각이 있다. 이런 관계로 전쟁기념관 이 금년 10월 8일 양헌수 장군 현양 행사에 전등사 주지 스님을 초청할 예정이다.

라. 송구대(일명 송구평) 성역화 사업
양헌수 장군이 어린 시절 무예를 익혔던 택승정과, 학문을 익혔던 봉황정이 소재한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송구대 일대를 장군을 추념하는 성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양헌수대장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던 이 사업은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당초 교육관 및 전시실 건립, 택승정 복원, 생가 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향후 ‘양헌수대장기념사업회’를 복원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 제주 지역 후손들의 기념사업 추진

양헌수 장군이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1864년 태풍으로 흉년이 들어 굶주리던 제주 백성들을 위해 조세 감면과 구휼 등 선정을 펼친 장군의 공덕을 기리는 선정비가 제주도 각지에 10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후손들이 양헌수 장군 관련 유물의 제주도 대여 전시, 활쏘기 대회 유치, 학술대회 개최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양헌수 장군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쟁기념관과 협의 중인 내용

가. 양헌수 장군 현양 행사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초청 및 기념사업 협의 계기 마련

현양 행사에 양평군수, 강화군수 및 제주도 실무책임자, 전등사 주지 등을 초청하여 활쏘기대회 순환 개최 등 실질적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나. 양헌수 장군 기념 활쏘기 대회 정착 지원요청

현재 일부 후손들이 추진하고 있는

활쏘기 대회가 정기적인 기념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훈처장상 제정 등 전쟁기념관의 관심과 후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 양헌수 장군 유물의 제주도 대여 전시 협조

제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헌수 장군의 유물을 제주도에 대여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라. 택승정 활터 복원 관련 업무 협의 창구 소개 및 지원 요청

전쟁기념관이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념사업이므로 협조를 요청했다.

송구대 인근의 국방부 소유 군부대 철수 부지를 양헌수 장군 기념 활터 부지로 제공하고, 사정 건립은 양평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선으로 부지 확보는 남원 양씨 광탄종중 소유의 토지인 송구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택승정 복원은 '양헌수 대장기념사업회' 추진하던 사업의 하나였지만 다른 사업과 별개로 우선 추진 가능하다.

맺음말

여러 기념사업 중 대학생 활쏘기 대회와 택승정 복원은 향후 양헌수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기념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택승정 복원은 양헌수 장군 기념사업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택승정이 일상적으로 누구나 와서 활을 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활을 쏘며 자연스럽게 양헌수 장군을 추념하게 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살아있는 현양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양헌수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기념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활터에서 생긴 일



박 평 선

내가 처음 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 사극 드라마에서 서 장군들이 활을 쏘는 모습을 보면서부터이다. 멋진 갑옷을 입고 활을 당기는 모습은 어린 나에게 가슴을 뛰게 했고, 그 이후로 잊고 지내다가 유교경전을 공부하면서 다시금 활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논어책에 보면 공자께서 “활쏘기는 군자의 다툼이다”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항상 활을 쏘아 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강화도에서 홀로 공부할 때 문득 활을 직접 쏘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활을 구입하고, 넓은 마당에 과녁을 세워두고 무작정 쏘아봤다. 그랬더니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활을 쏜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과 몸의 자세를 돌아보는

수행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공자께서도 그래서 군자가 즐겨하는 놀이라고 했나보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1년 정도 즐겨 쏘다가 다시 서울로 나오는 바람에 한동안 활을 잡지 못했다.

그 뒤로 10여 년이 더 흘러서 충북 보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활터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동학정이다. 동학공원 내에 위치한 확 트인 멋진 동학정 활터에 가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사(新射)가 되었다. 사범님으로부터 활을 잡는 법과 화살을 당기는 법 등등 처음부터 자세하게 배우니, 지난날 아무것도 모르고 활을 쏘았던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궁사(弓士)가 된 느낌이 들었다. 역시나 뭐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신사로서 틈나는 대로 활터를 찾아 습사(習射)를 했다. 한창 연습이 고조되었을 때는 새벽 6시 전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활을 쏜 적도 있다.

그만큼 재미가 있는 스포츠였다. 아침마다 과녁까지 화살을 주우러 가는 동안 산에서 부는 바람은 정말 상쾌하고 신선한 자연의 맛 그대로였다. 동료 신사와 같이 습사를 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서로 격려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니 더 힘이 났다. 그리고 사범님의 자상하신 가르침이 분발심을 일으켜 주었다. 그래서인지 8개월 만에 접장을 달았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오시(五矢) 오중(五中)의 기쁨은 잊지 못할 추억이다.

마침내 1급 자격을 취득하고, 바야흐로 1단에 도전하였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서인지 연신 두 번의 실패를 겪고, 한참 재도전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을 때, 그만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대(射臺)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 여러 명이 습사를 하는데, 큰소리를 내어 다른 사우에게 방해를 주었고, 이내 선배 사우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다. 그때 처음으로

활터에서 회의를 느꼈다. 자존감도 무너졌다. 지난 2년여 동안 신사로서 기본자세를 배웠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실천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한 번의 실수를 더 했다. 그때마다 스스로 몹시 부끄럽게 여기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사대에 섰건만 그 버릇은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 그렇게 비슷한 일로 3번 정도 크게 실수를 하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배 사우들이 나를 용서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더욱 심하게 질책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너그럽게 용서를 구하고, 친절하게 가르침을 받는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활을 쏘는 목적이 반구저기(反求諸己)를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수행하는 도(道)라고 한다. 그런데 배우고 알고

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사우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렇게 2년 동안의 동학정 활터에서의 일은 막을 내리고, 기억 속에 남겨진 추억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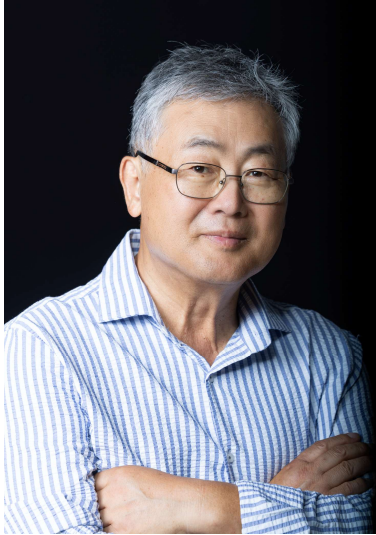
그러나 동학정에서 어느 비가 오는 봄날 습사를 하는 추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그리고 스스로 그때를 회상하며 자문해본다. 산천이 온통 푸르르고, 물 안개는 하얗게 피어오르는 앞산, 그리고 붉게 동학정을 물들이는 꽃잔디들의 잔치가 있던 날, 처마 끝에서는 빗방이 간단없이 떨어지고, 습사하는 궁사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다. 누구나 명종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군자(君子)의 활쏘기는 오직 반구저기(反求諸己)에 있으니, 명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이다.

이렇게 한때나마 동학정에서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뒤로하고, 지금은 보은향교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동학정의 회원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디에

서 무슨 일을 하던 군자(君子)로서 깊이 수행하며, 마음으로 활을 잡고 도와 덕의 화살을 쏘리라 다짐해 본다. 다시 사대(射臺)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말이다. <

*박평선(朴評鮮) 충북 보은 옛 동학정
신사 /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박사,
보은향교 가풍지원센터장

활쏘기와 새로운 세상



한진만

(호반정, 강원대 명예교수)

나는 원래 테니스를 좋아했다. 교수 테니스 대회를 쫓아다니고 주말엔 동네 테니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평일에도 수업이 끝나고 오후 5시만 되면 테니스장에 가지 않으면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으니까. 오죽하면 그 옛날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일기장에 우리 아빠는 매일 테니스를 친다고 써서 선생님이 아빠가 테니스 선수인줄 알았다고 하였다.

그런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것이다. 정형외과는 물론 통증의학, 신경외과, 침, 뜸, 물리

치료 등 잘한다고 하면 거리를 개의치 않고 찾아다녔다. 삼성병원에 갔더니 지금은 이르고 50미터도 걷지 못하면 오라고 하는데 퇴직 무렵 결국 50미터도 걸을 수가 없었다. 길을 가다가도 힘들면 아무데나 앉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테니스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퇴직한 선배교수가 활을 낼 것을 권했다.

춘천 호반정에서의 습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 소개받은 사범님이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정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이라 한 달에 두세번 보면 잘 만나는 것이었다. 혼자 연습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구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뒤죽박죽이었다. 이렇게 6개월을 허비한 다음 고정 사범을 소개받아서 2개월 만에 집궁례를 할 수 있었다. 2018년 8월 호반정 문을 노크하여 그 다음 해 2월에 집궁례를 하였으니 나만큼 오랫동안 수련생 생활을 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으리라.

집궁례를 하고 난 후 활을 내니 허리가 좀 펴지고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한 순을 서서 내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서 쉬어야 했고, 활을 내고 고전까지 가는데도 한 번은 쉬어야 했다. 그래도 오전에 나가서 매일 같이 활을 내는 분들이 생겨 하루하루가 재미있었다.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마침 코로나팬데믹을 맞아 활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위 오전반 동료들과 춘천 근교를 찾아다니며 걷기도 하고 나무와 꽃 등 식물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도 활을 내는 것 못지 않은 즐거움이었다. 코로나 전염이 좀 완화되어 활을 내게 될 때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춘천 근교 나아가 고성, 삼척, 철원까지 원정 발길은 이어져서 삶의 질이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허리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아들이 수소문해 온 양재동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일주일 정도의 칩거 생활 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디스크와 협착이 모두 있어서

2-3-4-5번 척추 수술, 즉 디스크와 협착증을 모두 수술하는 대수술 후 재할 없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고 활을 내는 데도 지장을 받지 않게 되어 활을 안정되게 낼 수 있게 되자 동료들이 대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활 내는 재미를 더해갈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세 사람과 고참이면서 활을 잘 내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많이 돌아다녔다. 활을 내는 재미도 있었지만 여행겸 관광겸 다녔고 상금으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보다 즐거운 생활이 없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부여의 롯데콘도에서 1박을 하고 부안근처에 있는 곳에서 전국 대회에 참가했는데 우리 일행 중 한 분이 개인전 3등을 해서 상금으로 그곳 명물인 백합정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다. 활을 내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함도 있지만 더불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육체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몇 년 활을 내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거의 일년동안 쫓아다니며 시끄러운 정을 정리하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활을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두를 맡아달라고 매달렸다. 그러나 나는 활만 내고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처음에는 그들의 부탁을 일축했다. 그런데 그때엔 정이 워낙 시끄러웠다. 사두와 회원 간에 원만치 못한 일이 자주 있었고, 급기야는 법적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젊은 회원들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사두에 출마하여 경선을 통해 사두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평소에 정이 시끄러운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집사람이 내가 정운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워낙 싫어해서 사두 출마는 언급도 못했다. 심지어 선거기간 동안 집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마침 손녀들과 같이 일본 여행을 하게 되어 선거운동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 놓고 잘 놀다 왔다. 돌아와서 짧은 기간동안만 선거운동을 했다.

투표하는 날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투표만 하고 집에서 있다가 결과는 봐야 한다고 하기에 정에 나가 당선된 것을 알고 가벼운 회식을 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당선됐다고 자수했다. 와이프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군요 하더니 할 수 없이 이왕 맡은 것 잘 하라고만 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도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면 자기 말을 듣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핀잔을 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다. 올 12월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벌써 한 번 더하라고 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고 있다.

출마 당시 나는 조용하게 활을 내는 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웠다. 우선 그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예산내역을 매달 공개하고 어떠한 일이든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임원회의 날짜는 미리 공고하고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가 등도 미리 고지해서 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니까 잡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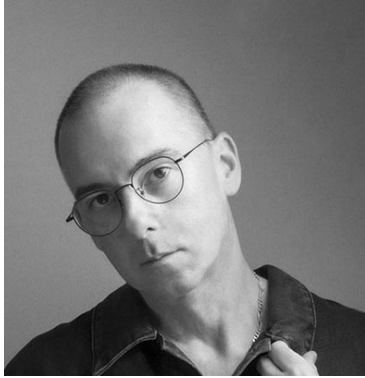
전국 어느 정이나 마찬가지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일들이 터진다. 대부분 점잖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적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꼭 말썽을 피우는 경향이 있다.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아 정말 사서 고생이다. 활만 낼 때에는 불편함도 고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는데 책임을 맡고나니 복잡한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목디스크가 와서 왼팔로 밀어주지 못했고 이어서 또 어깨 고장으로 지난 일 년은 활을 잘 내지 못했다. 신사들이 입정하면 무엇보다 준비운동을 강조했는데 정작 나는 소홀히 하고 건성으로 몸을 풀었던 게 아닌가 싶다. 예전의 45파운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서서히 회복해서 32파운드에서 41파운드까지는 끌어 올렸다. 과녁 뒷산의 나뭇잎을 보고 쏘다가 이제는 과녁 근처까지는 왔지만 아직은 먹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활을 당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요즈음 관중보다는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화살의 소리



데이비드 라바이쎈

(David Lavaysse, 안양정)

저는 오래전부터 활쏘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2022년에 처음 한국에서 한동안 지낸 뒤, 2024년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마침 제가 사는 곳에서 안양정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안내판을 보고, 한국 전통 활쏘기를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24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던 활쏘기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활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고, 화살을 쏘아 과녁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련이 제가 처음 가졌던 활쏘기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을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예술가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몽펠리에 폴 발레리 대학교에서 그래픽 엔지니어링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아마 제가 활쏘기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형태와 리듬, 몸짓, 그리고 물론 소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화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지도사범님이신 지동철 사범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세였습니다. 사범님이 자주 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가 “Energy down”입니다. 기운을 몸 아래쪽으로 내리고, 하체를 안정시키면서 상체는 가능한 한 편안하게 풀어 두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얼마나 분명하게 동작 속에 드러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로, 긴장, 조급함, 집중력 부족은 활 앞에서 쉽게 감출 수 없습니다. 사범님은 때때로 제가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매우 빠르게 알아보십니다. 사범님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녁이 한 발의 질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과녁을 맞히지 못한 화살을 좋게 평가하실 때도 있고, 반대로 과녁을 맞힌 화살을 바로잡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활을 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도 과녁을 맞히고 싶고, 맞히면 기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활쏘기에서 다른 무언가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특히 화살의 소리에서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화살이 떠나는 순간은 놀랄 만큼 부드럽습니다. 거친 소리도, 지나친 마찰도, 흐름이 끊기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화살은 활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자유롭게 날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 집니다. 그런 순간에는 어떤 물체가 단순히 과녁을 향해 던져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활을 지나 화살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 화살이 그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와 스스로의 궤적을 따라 계속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작곡가인 저는 어느 순간부터 활쏘기의 결과를 보는 것만큼이나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소리가 과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정보를 줍니다. 동작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힘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화살이 떠나는 순간에 흐름이 끊겼는지를 느끼게 해 줍니다.

한국 전통 활쏘기에서 제가 또 하나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활을 쏘고 있어도 서로의 공간과 리듬, 집중을 존중합니다. 활을 쏘는 동안의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 공유하는 깊은 집중이

회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배려와 겸손을 특히 좋아합니다.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으며, 굳이 계속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곁에서 함께 수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측면은 활쏘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쟁의 성격을 가진 작은 행사에 두 번 정도 참여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경쟁은 제가 활쏘기를 경험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승부와 점수가 수련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틀과 긴장감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발전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점수는 화살이 과녁을 맞혔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한 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세와 호흡, 집중, 이완, 움직임이 잠시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절제된 분위기와

때문에 다시 활을 듭니다. 이 반복은 제가 활쏘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그 전에 머릿속에 쌓여 있던 소음의 일부가 비워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바깥세상의 걱정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잠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활을 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몸과 호흡, 집중과 동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쏘기는 저에게 점차 '행동 속의 명상'에 가까운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험은 활쏘기문화보존회(KTACS)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영일 회장님께서 새로운 웹사이트 작업을 제안하셨을 때, 프로젝트는 회장님과 지동철 사범님, 그리고 작업에 참여한 여러 회원들과의 회의와 대화를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제 역할은 전달 받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명확한 구조를 만들고, 이를 한국어와 영어 버전의 웹사이트에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업 과정을 통해 저는 나영일 회장님과 KTACS 회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 온 연구와 문서, 사진, 기록의 풍부함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는 이제 이러한 자료를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앞으로 프랑스어 버전도 만들어, 이 자료들 가운데 일부를 새로운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처음 안양정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저 활을 당겨 화살을 과녁에 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과녁은 여전히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과녁 사이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 호흡, 집중, 침묵, 이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전송, 그리고 화살이 아무런 걸림 없이 활을 떠나 그저 날기 시작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지금의 저에게 한국 전통 활쏘기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The Sound of the Arrow

David Lavaysse(Anyangjeong)

I had been interested in archery for a long time, without ever really having the opportunity to practice it in France. After spending an initial period in Korea in 2022, I moved here in 2024. Anyangjeong happens to be very close to where I live. One day, while passing by the range, I noticed a sign and simply went in to ask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for me to learn Korean traditional archery there. That was in October 2024.

At the time, my understanding of archery was fairly basic: learning how to handle a bow properly, shooting an arrow, and trying to hit a target. I did not yet realize

how much this practice would gradually change that initial idea. I am a French artist and composer, and I also teach graphic engineering at Paul-Valéry University Montpellier. These activities have probably influenced the way I began to observe archery.

I naturally pay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forms, rhythms, gestures and, of course, sounds. But it took me some time to understand what I should really be looking at and listening for in an arrow. My Sabomnim, Ji Dong-cheol, began by teaching me something much more fundamental: posture. One expression comes back regularly in his teaching: "Energy down." Bringing the energy down into the lower part of the body, finding a stable grounding, and allowing the upper body to remain as relaxed as possible.

It sounds simple when put into words. In practice, it is a constant search. I also discovered how clearly our inner state appears in the gesture. Fatigue, tension, haste or lack of concentration are difficult to hide from the bow.

My Sabomnim can sometimes tell very quickly what state I am in, even before I have fully become aware of it myself.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he has taught me is that the target provides only partial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of a shot. He may appreciate a shot that did not reach the target and, conversely, correct a shot that did. This distinction has profoundly changed the way I practice.

Of course, I want to hit the target, and I am pleased when

I do. But gradually, I began to look for something else in the shot. I hear it particularly in the sound of the arrow. When a shot feels right, the release is often surprisingly soft. I hear no harsh snap, no excessive friction, almost no break in continuity. The arrow seems to glide away from the bow and then begin to fly freely. In those moments, I do not really feel that an object has simply been projected towards a target. I have more the impression that the movement initiated in the body continues through the bow and then into the arrow, before the arrow separates from it and carries on along its own trajectory.

As a composer, I gradually realized that I was listening to the shot almost as much as I was looking at its result. Sound obviously does not replace the target. It simply provides another

kind of information. It tells me something about the continuity of the gesture, about the way force has been transmitted, and about whether or not there was a break at the moment of release.

Another aspect of Korean traditional archery that has struck me is the way it shapes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Many of us can practice at the same time while respecting each person's space, rhythm and concentration. The silence during shooting is not an absence. It creates a form of shared attention. I particularly appreciate this restraint, as well as the kindness and humility that generally accompany exchanges between members. One can receive advice, observe someone more experienced, or simply practice alongside others without constantly needing to fill the space with words.

This collective dimension seems essential to the practice.

So far, I have taken part in only two small events with a competitive element. Competition is therefore not at the center of my experience of archery. I can nevertheless understand what a challenge and a score can bring to a practice: a framework, a demand for precision, and a way of measuring certain forms of progress. But they cannot measure everything. A score tells us whether an arrow reached its target. On its own, it cannot tell the whole story of the shot.

What I am more interested in is that moment when posture, breathing, attention, relaxation and movement seem, briefly, to come into alignment. That moment does not always happen. That is precisely why we begin again. This repetition also produces an effect that I did not

when I started practicing. I very often leave a session with the feeling that some of the mental noise I had accumulated beforehand has been cleared away. The concerns of the outside world have obviously not disappeared, but for a while they have receded. While shooting, one has to keep returning to the body, the breath, attention and gesture. In this sense, archery has gradually become for me something close to a form of meditation in action: a very concrete attention to what one is doing at that precise moment.

This collaborative process allowed me to appreciate the richness of the research, documents, photographs and archives gathered over the years by Chairman Na and the members of KTACS. The new website now makes this material more easily accessible, both in Korea and abroad.

I also hope to prepare a French

version in the future, so that some of these resources can become accessible to a new audience. When I first walked into Anyangjeong in October 2024, I thought I was essentially going to learn how to shoot an arrow at a target. Today, the target is still there, at the same distance. But between it and me, many other things have appeared: posture, breath, attention, silence, relaxation, respect for others, transmission, and that very particular moment when an arrow leaves the bow without resistance and simply begins to fly. For now, perhaps this is what Korean traditional archery means most to me. ◁

몸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활을 지나 화살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 화살이 그 움직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와 스스로의 궤적을 따라 계속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산정 활쏘기 체험



변정용

(호림정, 동국대 명예교수)

9월 5일 호림정(경주시) 조궁회(아침 6시에 활쏘기 하는 모임) 구성원 12명이 승용차 2대에 분승하여 황성공원 도서관 앞에서 07:30에 출발하였다. 7월말부터 통영시청에 문의하여 준비하였다. 참가 희망자 명단을 제출하는데 그중 1명은 반드시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제출하여 허락을 무사히 받았다. 경부고속도를 경유하여 부산 대동 나들목에서 부산신항 산업도로를 이용하여 가덕도, 해저터널, 아름다운 거가대교, 거제도를 거쳐서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해서 주차 후 설 틈도 없이 곧

바로 승선하여 9:30 출발 페리를 탈 수 있었다. 배는 20분 정도 가니 한산도 항구에 닿았다. 내려서 제승당으로 10여분 걸었다. 먼저 제승당에 충무공 사당에 참배를 한 다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나가니 한산정이 있었다.

삼도수군통제영은 1593년(선조 26년) 7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진을 설치하고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면서 이곳 경남 [통영시](#) 한산도(두을포, 현재의 제승당 일대)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이것은 1592년(임진년) 8월 14일(음력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이긴 한산대첩이 있는 다음해 일이다. 2004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서 ‘난중일기’를 읽었고, 궁금증이 더하여 이순신연구회가 20년간 연구하여 펴낸 ‘이순신과 임진왜란’ 4권을 열공한 바가 있다. 한산대첩 승리에서 신의한수가 바로 조선 전함의 밑바닥이 평평한 통구미 배(평저형)에 기인한다고 한다. 이것은 판옥선의 좌우에 설치된 함포들이 연속 사격이 가능하게 하는 조선의 평저선 함선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함선의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방향을 180도로 회전하기가 거의 제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왼쪽편에 설치된 함포를 방포(放砲)하고 바로 180도 돌려서 오른쪽 함포를 방포하는 걸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침저형 일본 함선 세끼부네가 미처 접근하기도 전에 연속으로 함포를 방포할 수 있어서 승리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우수한 배를 통구미형 배라는 것이다.

한산정 앞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골짜기를 이루며 바다물이 출렁이고 있었다. 멀리 바다 건너편 언덕에 과녁이 2개 설치되어 있었다. 설명을 읽어 보니 이곳의 사거리가 145미터로 되어 있다고 한다. 난중일기에 보면 충무공은 전투가 없을 때 휘하 장수들과 활쏘기를 하였다고 하며 ‘오늘은 4순 또는 5순을 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때로는 ‘내기 활쏘기를 해서 실컷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는 12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활쏘기 내기를 하였다. 모두 5순을 쏘는데 2순은 연습하고 3순으로 승부를

내기로 경기규칙을 정하였다. 그리고 난 습사 때 사대 1번에 섰다. 그리고 초시를 발사하였다. 그대로 관중하니 ‘관중이오!’란 소리가 메아리쳤다. 연습이 끝나고 본 경기를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서 2순에 그냥 승부가 나버렸다. 그래서 마지막 한 순은 한산정에서 활쏘기 모습을 사진에 담아 개인별 추억 사진으로 남기는 기회로 삼았다.

살치기를 하러 가는 길은 만을 굽이돌아서 뺨뺨한 숲을 통과하여 마지막엔 조금 가파르게 올라서 과녁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과녁 앞은 경사가 급하였고, 과녁 뒤에도 절벽 수준으로 경사가 급했다. 안전을 위해서 경사면을 좀 다듬는 정비 작업이 좀 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오후 1시 배로 통영 시내로 나왔다. 동피랑 101에서 산해진미를 약주도 좀 곁들여서 체험하고 통영항을 한바퀴 여유롭게 돌았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산정 활쏘기 여행을 모두 한결같이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평소

활터에서 수련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에서 부터

명궁으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여러가지 활과 화살, 활쏘기 기술, 정신, 느낌을
시 또는 수필 그림 등을 A4 한 쪽 이상 3,6,9,12월 15일까지
얼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나영일 회장님 또는 변정용 편집장에게
카톡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Korea Traditional Archery Culture Society